

치 사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정성과 나눔의 열기에 훈훈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렇듯 봉사와 나눔의 법석을 함께 열어주신 월운 큰스님,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종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소중한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무너지면 개인은 방황하게 되고 사회는 응집력을 잃습니다. 불의의 경제위기, 사고, 질병 등은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기꺼이 나선 봉선사 교구봉사단 여러분의 서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천은 세상 모든 고통 받는 중생의 속에 들어가 함께 고통을 받겠다는 문수보살의 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 이후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사회의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생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수행하는 대승불교의 전통에 따

라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무한 돌보미 교구봉사단’발대식은 우리 조계종단의 사회적 소통에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월운 큰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사부대중의 큰 원력과 실천에 감사드리며 불교의 자비정신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종단 역시 이러한 대 보살행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년 1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